

## 척추는 어떻게 병 덩어리가 되었을까?

이 경 석

순천향의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입원을 많이 하는 다빈도 질병 상위 10개 질병에 기타 추간판 장애와 척추병증이 각각 4위와 7위를 하였다. 하지만 이 둘을 합하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입원을 많이 하는 질병이 바로 척추 질환이다. 척추가 바로 가장 흔한 병 덩어리란 이야기다.

척추가 병 덩어리가 된 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척추는 미국,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환자들이 의사를 찾는 매우 흔한 질환이 되었다. 특히 퇴행성질환과 척추수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는 3대 질병이 협착증(LSS)과 퇴행성 추간판질환(DDD), 그리고 추간판탈출증(HLD)라고 한다. 과연 이 세 질환은 언제부터 이렇게 급증하게 되었을까?

척추질환의 역사를 보고한 논문에 따르면 기원전 2천년에 이미 요통에 대한 기록이 있었고, 다리가 저리다는 좌골신경통도 이미 히포크라테스가 기록을 남겼다고 한다. 그러나 HLD를 진단하고 수술을 하기 시작한 시기는 1932년으로 20세기 들어서 이고, DDD역시 1950년대 이후에 찾아낸 질병이다. 말하자면 수천 년 인류 역사상 척추질환을 수술로 치료하기 시작한 역사가 고작 100년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오래도록 허리가 아픈 건 질병이 아니라 증상이었다. 그런 증상을 질병으로 만든 건 새로운 도구와 생각으로 새로운 병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1993년 Fardon 등은 영어를 쓰는 척추전문 의사 51명에게 요통의 흔한 원인질환 4가지의 이름을 적어 달라고 했다. 그 결과 무려 50개가 넘는 병명이 쏟아졌다. 의사마다 생각이 다르고 병명이 달랐다는 이야기다. 김춘수 시인의 꽃을 이용해 설명하자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증상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척추 병으로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DDD가 되었다. 이런 현상을 [병 주고 약 주기]라고 풍자한 의사도 있었고, 요통 용어의 바벨탑이라고 풍자한 의사도 있었다. [질병 떠벌리기]란 책이 이미 출판되어 있는데, 말을 통해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 개념을 이용해 질병을 만드는 현상을 꼬집고 있다. DDD의 변종인 추간판 내장증(IDD)이란 병명은 1986년 호주의 정형외과 의사인 Crock이 만든 병명인데, 증상은 있지만 질병은 없는 사람들은 질병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추간판조영술에 양성으로 나온 사람을 IDD란 병을 가진 사람으로 진단하게 되었다. 결국 병이 없었던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 의료화(medicalize)한 사례 중 하나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현대 의학은 일상생활을 의료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과 사망은 이미 의료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며, 자가(自家) 출산은 1% 미만, 자가 사망은 16%가 안 된다.

수천 년 동안 칼을 대지 않았던 척추였는데, 왜 20세기 들어서 척추 수술시대가 열렸을까? 여기엔 시장경제와 사회 불평등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세계 경제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일인당 수입이 급증하게 된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따르면 1800년대부터 꾸준히 오르던 지수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가파른 경제성장은 토끼와 거북이의 무제한 경주를 뜻한다. 빠른 토끼가 느린 거북이를 엄청나게 앞지르면서 빈부격차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자본주의 2.0이 대두되지만, 복지가 보완된 유럽에 비해 신자유주의 이론을 업은 미국은 자본주의 3.0에 의해 전문직이 유급 노동자로 전락하고, 부도덕한 자본의 [이익의 사유화와 손해의 사회화]에 의해 결국 2008년 미국 월가를 중심으로 세계 금융 위기를 초래하였다.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론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소득 불평등은 1970년대 이후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배고픔은 참을 수 있어도 배 아픔은 참기 어렵다. 20세기는 빈곤(hungry) 시대가 아니라 분노(angry) 시대다. 한국도 이미 분노 시대를 겪고 있다. 그리고 분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고통이 있다. 삶이 고달픈 사람이 더 화가 나고 화가 날수록 더 아픈 사람이 많아진다.

한편, 통증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의사들이 환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대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방식의 치료를 하면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하고 있다. 그리하여 망치를 친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이는 현상이 생기고, 나사못 박는 기술을 배운 의사들은 여기 저기 못 박느라 정신이 없다. 제 머리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진단과 치료를 손쉽게 검색과 지침에 따르는 것은 스마트 폰에 머리를 박고 사는 21세기 레밍을 떠오르게 한다. 1993년에 강간당하는 척추를 걱정했던 미국 신경외과 의사의 우려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보존적 치료의 위험을 결코 과장하지 마라! 수술의 위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라! 수술의 이점을 결코 과대평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수술을 절대로 옹호하지 마라!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에서는 척추치료가 과연 이대로 좋은 지 터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 부 록

골치 아픈 일 때문에 골치가 아픈 사람과 / 속상한 일 때문에 속이 상해 배가 아픈 사람이 병원에 왔다. / 골치 아픈 일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건 / 병이 아니라 당연한 증상이고, / 속상한 일 때문에 속이 상한 것도 / 살다 보면 한두 번 겪는 증상일 뿐인데, / 습관적으로 골치 아프고 속상한 사람들은 / 제 속 좁은 줄은 모르고, / 세상이 넓다고 불평이다.

골치 아픈 일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걸 / 신경성이라고 하면 고객이 불쾌해 하니까 / 긴장성 두통이라고 포장을 바꾸고, / 속상한 일 때문에 속이 상한 걸 / 위장관 자율신경 기능난조라고 포장을 바꾸듯 / 스트레스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걸 / 새 시대엔 신경병증성 요통이라고 / 새로운 포장을 한다.

이거 보세요, 의사양반! / 난 애당초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고, / 이 검사 저 검사 하란 대로 했더니, / 디스크지 뭐지 몰라도, / 수술하라고 해서 수술을 했고, / 수술했다고 금방 낫는 거 아니니 /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 아니 왜 안 낫는 겁니까?

한참 지나도 계속 아파 다시 검사를 했더니, / 어느 새 재발했다고 / 또 수술하라고 해서, / 한 번 더 믿기로 하고 몸을 맡겼고, / 기다릴 만큼 다시 기다렸지만, / 도대체 왜 계속 아픈 겁니까?

할 수 없이 의사를 바꿔보기로 했는데, / 디스크가 아니라 척추강 협착증이라고 해서, / 다른 의사한테 다시 물어봤더니 / 척추수술 후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 이왕 의사 바꾼 김에 / 또 다른 의사한테 진찰을 받았더니 / 척추 불안정으로 / 척추 뼈를 다 붙여야 낫는대네요. / 무슨 허리 병이 그리 많은지 / 의사마다 병명이 다 틀려서 / 큰 맘 먹고 잘 아는 친구 소개로 / 유명하다는 의사를 만났더니 / 이젠 또 신경병증성 요통이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돌지 않겠습니까? /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 /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을 찾은 게 /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 날더러 뭘 어찌란 말입니까?

환자는 아파 죽겠는데, / 온 동네 용하다고 소문난 의사가 / 값비싼 현대의학의 첨단 검사를 모조리 하고서도 / 왜 아픈지 잘 모르겠다면, / 환자가 당연히 화를 내겠지요.

그렇다고 신경이 예민하니 어찌니 했다가는 /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의사들이 / 스스로 원인을 못 찾았다는 말은 못할망정 / 누구 약을 올리느냐고 바로 욕먹기 쉽습니다. / 참 고약하고 난감하지요. / 바로 이럴 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요통은 신경병증성 요통이라고 하는 / 아주 특이한 요통입니다. / 19세기까지는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고, / 20세기 말에야 겨우 그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 아직까지도 그 정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 아주 고약한 요통입니다.

일단 환자는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 신경병증성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 흔하고 흔한 별 거 아닌 증상이 아니어서 체면이 서고 / 오히려 자신의 증상을 인정받아 만족해하기도 합니다. / 병에 대해 너무 자세한 설명을 하지 마십시오. / 신비감이 사라지면 바로 책임추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십시오. / 의사의 부지런한 노력에 고객께서는 감동하실 겁니다. / 아참! 되도록 미처 검정하지 못한 새로운 치료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치료방법일수록 고객께서는 첨단치료에 신뢰를 보낼 겁니다. / 혹 의심하거든 매우 앞선 의사들만 아는 최첨단지식이라고 소개하십시오. / 그리고 잘 낫지 않아도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 신경병증성 요통의 특성이 본래 그렇다고 하시면 됩니다.

신경병증성 요통은 / 그저 그런 정보들을 몽땅 수집해서 / 날로 아는 게 많아지는 쉽지 않은 환자들을 / 결코 불쾌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 열심히 치료를 받게 해 줄 겁니다.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 역시 경쟁이 치열할 땐 신상품이 최고입니다.

직업엔 귀천이 없다지만, / 돈 벌이엔 엄연히 귀천이 있어서 / 머리로 돈 버는 사람들이 / 허리로 돈 버는 사람보다 / 더 많

은 돈을 버는 게 현실이다.

머리를 많이 쓰면 머리가 아프듯 / 허리를 많이 쓰면 허리가 아프다.

그런데 머리가 허리를 부리듯 / 머리 쓰는 사람들이 허리 쓰는 사람들을 부리기 쉽고, / 머리 보다 허리 쓰는 사람들의 삶이 더 고달픈 법이라 / 고달픈 사람들은 늘 허리가 아프다.

옛날엔 부러졌거나 뒤틀린 경우가 아니면 / 죄다 그저 근육통이라, / 며칠 쉬고 달래면 좋아지는 게 상식이었는데 / 요즘엔 비싼 정밀검사로 살살이 뒤져내서 / 이름도 모한 병을 기어코 찾아내 코앞에 들이댄다.

환자는 삶이 힘들고 괴로워 허리가 아프다고 했을 뿐, / 스스로 추간판이 아프다고 한 적이 없고, / 신경에 병이 들었다고 한 적도 없는데, / 공부와 연구를 많이 한 머리 좋은 의사들이 / 우리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론과 방법으로 / 새로운 요통을 발견하고 확인했다면서 / 더 많은 동료들한테 널리 알리고 열심히 교육을 시켰단다.

고달픈 삶이 상처를 만들고, /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상처를 아프게 한다.

위로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 위로는 못 받고 대신 새로운 병을 받아 왔는데, / 새로 생긴 병이라 새로운 약을 써야 한단다. / 아픈 허리를 달래려다 / 번 돈 보다 약값이 더 드는 게 현실이다.

그리하여 / 머리 좋은 사람들은 / 새로 만든 병의 새로운 치료약을 앞 다투어 개발하고 / 새로운 약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나 예상하느라 바쁘다. / 이제 삶이 고달픈 사람들은 머리까지 아프게 생겼다.